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구원

성경을 읽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대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같은 주제는 다양한 수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개념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주일의 12-18 문은 바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인용되는 증거 성구는 모두 81개나 되는데, 그만큼 교회의 역사에서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뜻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주제들을 다룰 때에,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교훈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기에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제가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종교개혁이 발견한 하나님의 의

제5주일의 내용은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가르치는 제2부에서 첫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제2-4주일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 부분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제5주일의 12-14문에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묻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12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13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14문)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에,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개혁자 루터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1545년에 출간된 한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싫어하였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선생들의 용례와 관습을 따라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던 방식대로 하면, 이 의는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를 말하는 그러한 의였다…… 나는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다…… 나는 밤낮으로 이것을 묵상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나는 “복음



수도사 시절의 마르틴 루터 (루카스 크라나흐 그림, 1520년)

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의 전후 문맥에 집중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이다.¹⁾

루터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사람의 선행(善行)을 구원의 근거로 가르치던 중세 천년의 무지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²⁾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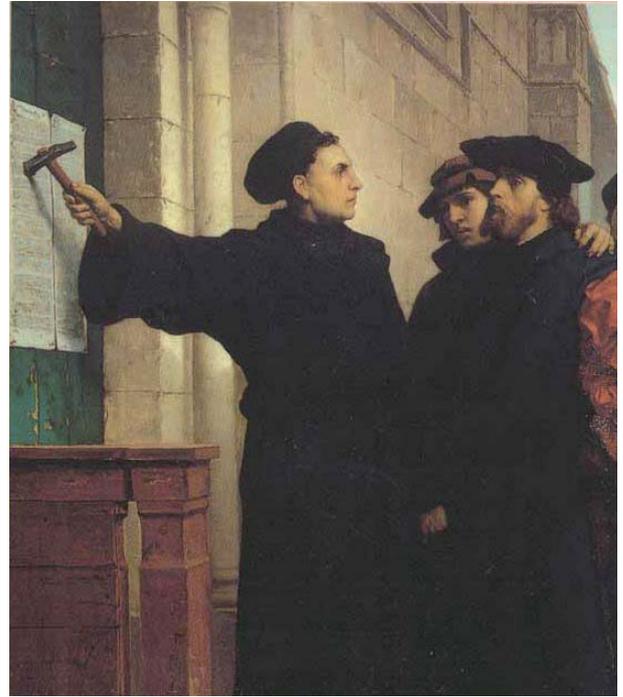
1) M. Luther, Werke, 54권 185쪽 17-25행; 186쪽 3-13행. 유해무, “오직 믿음으로 - 루터가 이해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 루터의 믿음과 신학』 (성약출판사, 2011), 62-63에서 재인용.

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대문에 붙인 95개조의 제1조는 신자의 회개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죄의 문제는 금화를 주고 면벌부를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음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

마르틴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을 칭술(稱述)하라”(삿 5:11)고 노래하였다(참조. 삼상 12:6-7).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사 46:13),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사 45:21) 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을 나란히 두고서 말한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시 98:2)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이 비슷한 의미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대로 의를 행하시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완성된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5-6)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여호와와 의로운 종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사 53:11).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사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대문에 95개조를 붙이는 루터 (상상화)

람을 의롭게 하며(롬 1:17), 이분을 믿는 것이 신자의 의이다(빌 3:9).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고백한다. 또한 14문에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고 이렇게 답한다.

14문답: 하나도 없습니다.

-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2)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2002) 77-101;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논총』, 2집(2002), 119-136; A. McGrath, Luther’s Theology of Cross (Blackwell Publishers, 1985), 119-128.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중보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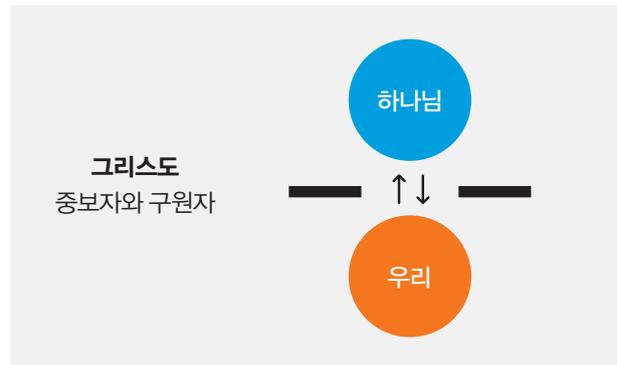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15문은 “그렇다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든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를 찾아야 하는가? 여기서 요리문답은 “찾아야 합니까?”라고 묻고 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중보자를 찾아 여행을 떠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의미이다. 제1문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차서 있게 가르치려고 ‘찾아야 합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뿐이다.³⁾

‘중보자’는 적대적인 두 편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 내는 일을 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후 5:18).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의 일만 하신 것이 아

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자’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의로우신 분이였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다 이루셨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히 10:7) 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다(히 10:10).

3)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164-65, 1154-1167; O. Thelemann, An Aid to the Heidelberg Catechism (Douma Publications, 1959), 48-49.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SCHLOSSKIRCHE)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만든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하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사실 ‘우리의 죄악’과 동의어이다. 우리가 잘하였다고 내놓는 것들은 모두 ‘더러운 옷’ 곧 정결 예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옷과 같아서 조금도 내어 놓을 만한 것이 못된다. 정결 예법에 따르면 몸에서 나온 피가 옷에 묻은 경우 즉시 빨아야 했고(레 15:27), 그가 손댄 것이나 접촉한 것도 모두 빨아야 했으며(레 15:20-23), 유출이 그친 후 8일째 되는 날에는 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했다(레 15:29-30).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생각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볼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고 죄악과 동의어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복음을 믿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일 뿐이다. 자기의 가난함을 마주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첫걸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5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지나는 엄위한 면을 깨우쳐 주면서,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어떤 해설가의 말처럼, “좋은 의도들로 포장된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⁴⁾

4) A. Pery, The Heidelberg Catechism with Commentary (United Church Press, 1963), 4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